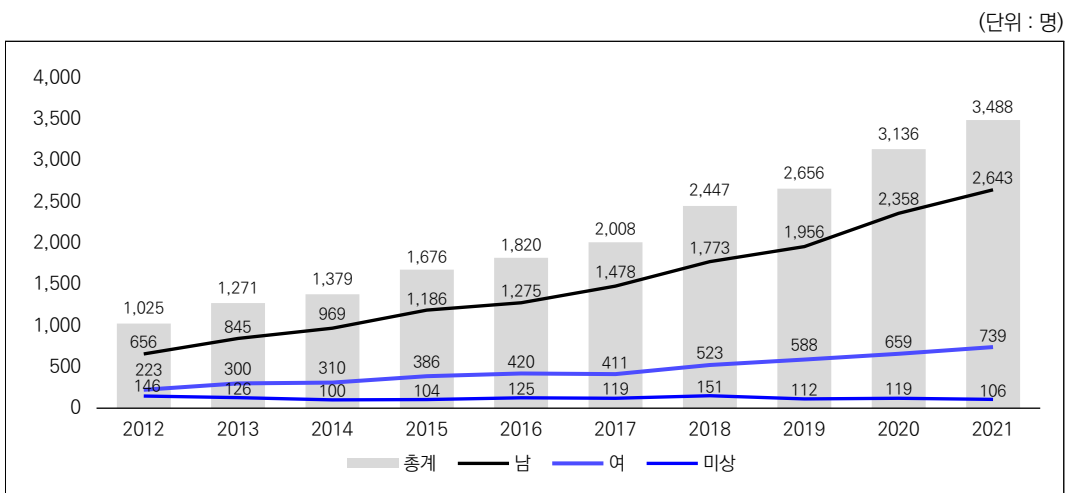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수

-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¹⁾ 수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약 9년간 3.4배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는 비단 노년층과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2년 1,025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488명으로 크게 증가함. 이는 1인 가구의 증가²⁾ 및 코로나19(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과 비교하여 31.3%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 중 남성 무연고 사망자는 2,643명으로 여성(739명)과 비교하여 약 3.6배 차이가 남.

[그림 1] 우리나라 무연고 사망자 수 추이



주 : 미상 및 기타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임(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미상'으로 취급).
 자료 : 보건복지부, 각 연도, 용혜인 의원실(2022).

- 1) 무연고 사망을 법률에서 고독사로 칭하고 있으며, 정의로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함.
- 2)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26.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7.8%, 2020년 28.0%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주로 50대 중년 남성에게서 발생하고 있음.
 - 무연고 사망은 50대 중년 남성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며, 이는 중년 남성들이 겪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³⁾, 이혼⁴⁾,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음.
-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함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음.
 - 무연고 사망과 개연성이 높은 사회적 고립도는 위기상황에서 인적,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019년(27.7%)보다 6.4%p 증가하였고, 남성(36.6%)이 여성(31.6%)보다 더 높음.
 -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32.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 간 교류가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세부적으로 2021년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27.2%가,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는 20.7%가 없다고 응답하였음.⁵⁾
-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들 중 한국은 사회적 고립도가 최상위권임.
 - 2016년 기준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24.1%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11.4%)보다 현격히 높음. 프랑스(11.6%), 일본(10.3%), 미국(10.1%) 등이 높은 편에 속하나 한국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 특히 50대 이상에서 OECD 평균 사회적 고립도는 12.8%인 데 반해,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36.9%로 매우 높음.
 - 종합하면, 무연고 사망은 주로 남성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50대 이후 비자발적 조기 퇴직에 따른 경제적 빈곤과 가족의 해체, 사회적 고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향후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인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서비스인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⁶⁾을 도입하고 1인 가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매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2021년 51.2세였고, 주된 퇴직 사유로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 폐업이 38.6%,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18.0%, 기타 14.2%, 건강이 좋지 않아서 13.5%, 정년퇴직 12.2%, 가족을 돌보기 위해 1.8%,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어서 1.7%였음.

4)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50대의 1인가구 사유는 본인의 이혼 35.0%, 혼자 살고 있어서 16.4%, 본인의 학업·직장 13.5% 등 순이었으며, 1인가구의 어려움으로는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34.2%,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27.4%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26.7% 등 순이었음.

5) 구체적으로 사회적 고립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2021년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는 19~29세 26.7%, 30~39세 27.9%, 40~49세 31.0%, 50~59세 37.1%, 60세 이상 41.6%였음.

6) 사회적 처방은 영국 국립보건인력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KL**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의사, 간호사, '자원연계 실무자' 등 1차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유한 비의료 서비스 '자산(asset)'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함. 제공되는 지역사회 자산은 예술활동, 신체활동, 학습, 자원봉사, 친교 모임, 자조 모임, 사회 보장 혜택, 교육 기회, 부채 해결 탐색 지원 등임.

〈표 1〉 지난 7년간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수(2015~21년)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전 체	전 체	1,676	1,820	2,008	2,447	2,656	3,136	3,488	
	남	1,186	1,275	1,478	1,773	1,956	2,358	2,643	
	여	386	420	411	523	588	659	739	
	미상 및 기타	104	125	119	151	112	119	106	
연 령 별	40세 미만	합계	54	81	63	76	81	104	76
		남	30	53	45	54	59	83	57
		여	24	28	18	22	22	21	19
	40~49세	합계	186	190	187	183	234	284	272
		남	166	159	157	152	193	239	217
		여	20	31	30	31	41	45	55
	50~59세	합계	429	418	507	557	576	673	667
		남	389	370	457	499	519	601	608
		여	40	48	50	58	57	72	59
	60~64세	합계	237	271	297	413	449	534	533
		남	197	230	265	361	396	463	484
		여	40	41	32	52	53	71	49
	65~69세	합계	176	166	224	271	324	387	462
		남	147	140	183	226	270	331	402
		여	29	26	41	45	54	56	60
	70세 이상	합계	490	569	611	796	880	1,035	1,372
		남	257	323	371	481	519	641	875
		여	233	246	240	315	361	394	497
	연령미상	합계	104	125	119	151	112	119	106

자료 : 보건복지부, 각 연도, 용혜인 의원실(2022).

〈표 2〉 사회적 고립도(2013~21년)

(단위 : %)

			2013	2015	2017	2019	2021
성별	사회적 고립도	합계	32.9	30.0	28.1	27.7	34.1
		남	33.6	30.8	29.6	29.0	36.6
		여	32.2	29.3	26.7	26.4	31.6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합계	25.3	23.2	21.6	20.4	27.2
		남	25.0	23.1	22.1	20.6	28.9
		여	25.6	23.3	21.2	20.3	25.5
	2)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합계	19.7	18.2	16.8	17.1	20.7
		남	21.5	20.1	19.2	19.2	23.9
		여	17.9	16.4	14.5	15.1	17.5

주 : 사회적 고립도는 조사대상인구 중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표 3〉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단위 : %)

	2007	2010	2013	2016
한국	21.9	22.2	21.8	24.1
OECD 평균	8.3	10.6	11.7	11.4
프랑스	6.3	7.3	8.0	11.6
미국	4.5	7.4	8.5	10.1
일본	7.0	11.2	9.2	10.3
스웨덴	7.2	8.0	8.9	8.2
독일	5.9	7.5	6.9	8.0
영국	2.7	4.5	6.2	6.8
호주	3.8	5.2	5.6	6.4

주 : 사회적 고립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자료 : OECD,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2017.

〈표 4〉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한국	6.6	19.4	36.9
OECD 평균	5.4	10.0	12.8
프랑스	6.8	8.0	10.1
미국	5.5	10.8	9.7
일본	6.5	9.8	11.8
스웨덴	2.5	7.3	10.7
독일	3.3	6.6	9.9
영국	4.6	6.7	6.4
호주	2.0	6.9	6.6

자료: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